차인표 "5년전 기획 신박…이미지 깨고 싶은 열망있었다"

영화 '차인표' 온라인 제작보고회

"이름 내건 코미디 영화에 부담"

개봉 연기끝 1월1일 넷플릭스 공개

넷플릭스(Netflix)가 차인표 주연의 코미디 영화 '차인표'로 새해 포문을 연다. 전례 없던 신박한 한국형 코미디를 표방하는 작품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영화 '차인표' 제작보고회가 온라인 화상 연결로 진행됐다. 차인표와 조달환, 김동규 감독이 참석했다.

영화 '차인표'는 대스타였던 배우 '차인표'가 전성기의 영예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다. 실존하는 배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물론 그의 과거와 현재,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오간다.

영화 '극한직업'으로 1600만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어바웃필름'이 제작해 기대를 모은다.

차인표 없이는 불가능한 기획이지만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처음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건 작품에 부담을 느껴 거절했다고 한다.

차인표는 "내 이름이 제목인 게 부담스러웠다. 5년 전에 제안을 처음 받았는데 그 때 김동규 감독님이나 제작자인 김성환 대표님을 잘 모를 때였다"며 "저에 대한 영화를 써서 가져왔는데 의심이 들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일까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5년 전에도 기획이 신박하다고 느꼈지만 영화 속 차인표가 극심하게 정체돼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부정했다"면서 "5년이 흐르면서 영화의 묘사처럼 정체기가 와서 이걸 영화로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출연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깨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고 밝혔다.

차인표는 "나를 통해 어떤 프레임에 갇힌 사람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감독의 목표가 아니었나 싶다. 나 역시도 26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차인표의 매트릭스에 갇힌 느낌이다. 이미지에 포박당한 느낌이 들었다"며 "연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인기와 흥행작 여부와 상관없이 변신을 시도하지 않고 안주했던 때가 슬럼프였다. (대중들이 부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최적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새롭고 실험적인 코미디 장르의 첫 실험대상이 된다는 묘한 설렘과 스릴"을 느꼈다는 그는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자신의 이미지와 작품에 등장하는 코믹한 이미지를 혼합해 영화 '차인표'를 완성해냈다.

부인인 배우 신애라의 반응을 묻자 "처음에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반응이었고 5년 후에는 뭐라도 하라고 하더라"며 재치 있게 받아쳤다.

개봉 연기 끝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찍고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넷플릭스를 통해 수많은 관객을 만나게 됐다"며 "배우로서 행운이고 영광스럽다. 감사한 일이다"고 언급했다.

배우 조달환이 짠 내 나는 차인표의 매니저 김아람 역을 맡아 극의 재미를 더한다.

조달환은 실제 차인표의 매니저를 만나 여러 조언을 들으며 실제 차인표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

그는 "차인표 선배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캐릭터 준비를 했다"며 "친해지니까 편한 동네 형 같았다"고 기억했다.

영화 '차인표'의 매력으로는 '독특함'을 꼽았다. 연기를 시작한 지 20년 동안 가장 신선했던 작품이라 칭할 만큼 기존 장르의 틀을 벗어난 독특한 신선함으로 가득하다는 설명이다.

영화 '차인표'로 데뷔하는 김동규 감독은 3년 넘게 배우 차인표를 주인공으로 하는 기획에 몰두했다. 모두가 '젠틀맨'이라고 부르는 차인표가 가진 이미지를 부러뜨리는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차인표의 실제 이름과 이미지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고, 그의 이미지를 마음껏 비틀고 변주했다고 한다. 김 감독은 "이미지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직업군을 떠올렸을 때 배우가 제격이라고 생각했다"며 "나에게 차인표는 톱스타의 표본이다. 왜 하필이 아닌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실제 차인표는 100배 더 웃긴다. 이번 영화가 이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내년 1월1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네이버 웹툰·웹소설, 영화·드라마·애니로 쏟아진다

네이버웹툰 자사 IP 기반 영상화 예정 발표

네이버웹툰은 자사 웹툰과 웹소설을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등으로 영상화하고 있는 현황과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있는 글로벌 인기 웹툰 '여신강림'은 지난 9일 동명의 드라마로 첫 선을 보였다. tvN 수목 드라마 '여신강림'(연출 김상협/ 극본 이시은/ 기획 tvN,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본팩토리, 스튜디오N)은 외모 콤플렉스를 지닌 고등학생 '임주경'이 메이크업을 통해 여신으로 거듭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원작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로 화제를 모았으며,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누적 조회 수 12억뷰를 자랑하는 웹툰 '스위트홈'도 지난 18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재탄생했다. 2020년 하반기 최대의 기대작으로 꼽혀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N)은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사 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다.

이응복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배우 송강, 이진욱, 이시영, 이도현 등이 출연해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전 세계 독자들이 열광한 원작 웹툰의 인기에 이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도 공개 이후 넷플릭스 글로벌 인기 랭킹 3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어 학원 좀비물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과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최규석 작가와 함께 선보인 웹툰 '지옥'도 영상 시리즈물로 제작 예정이다.

내년에도 인기 네이버웹툰·웹소설 IP 기반의 드라마가 안방극장을 찾는다.

내년 1월 방송 예정인 JTBC 새 월화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는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완전무결한 직진 후배와 완벽주의 선배의 심쿵 밀당 로맨스를 담은 작품으로, 배우 원진아와 로운이 출연한다.

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인 tvN 새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도 동명의 네이버웹툰이 원작이다. 웹툰은 최근 완결까지 꾸준히 목요웹툰 상위권을 유지한 인기작이며, 인간이 되고자 수백 년간 살아온 구미호 '신우여'가 목표를 이루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로 대학생 '이담'에게 여우구슬을 빼앗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장기용과 혜리가 출연을 확정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네이버웹툰과 웹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지난해 9월 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와 극장용 장편 영화 5편 제작에 대한 판권 계약을 맺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자신이 읽던 소설의 내용대로 바뀌어 버린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김독자'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작품이다. 웹소설의 폭발적인 인기에 웹툰으로도 제작되어 지난 5월부터 네이버웹툰에서 정식 연재 중이다.

또한 네이버웹툰 자회사 스튜디오N을 통해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 '연의 편지', '나노리스트'가 애니메이션으로, '용감한 시민'이 영화로 제작된다.

이외에도 ▲고인의 명복 ▲금수저 ▲내일 ▲대작 ▲마음의 숙제 ▲머니게임 ▲비질란테 ▲상중하 ▲알고있지만 ▲연의 편지 ▲우리 오빠는 아이돌 ▲유미의 세포들 ▲재혼 황후 ▲정년이 ▲피에는 피 등이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 김신배 사업 리더는 "네이버의 웹툰과 웹소설이 장르나 소재 구분 없이 다양성을 추구하며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작품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드라마·영화·애니 등의 원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들을 영상화해 'K-콘텐츠' 산업 성장과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레저, 데뷔 5개월 만에 첫 정규

데뷔 때부터 선보여온 '더 퍼스트 스텝' 시리즈 완결판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보이그룹 '트레저'가 데뷔 5개월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28일 YG에 따르면, 트레저는 내년 1월11일 정규 1집 '더 퍼스트 스텝 : 트레저 이펙트(THE FIRST STEP : TREASURE EFFECT)'를 공개한다.

트레저가 지난해 8월 데뷔 때부터 선보여온 '더 퍼스트 스텝'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앨범 발매에 앞서 이날 티저 포스터를 게재했다.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지구가 블루톤의 아트워크로 형상화됐다.

앨범 타이틀 '트레저 이펙트'는 트레저 데뷔 전 선보인 콘셉트 영상에서 언급됐다.

YG는 "트레저는 일상의 발견 하나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세상을 뒤흔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이를 '트레저 이펙트'라고 소개했었다.

그 후 약 5개월이 지나 첫 정규 앨범명으로 공개되며,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표현돼 팬들의 기대감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트레저의 이번 컴백은 YG의 초고속·초집중 전략이 집약됐다.

보통 YG 소속 가수들의 앨범 발매 주기는 긴 편이다.

지난 8월 7일 데뷔 이래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신곡 무대를 준비한데 이어 정규앨범까지 연달아 발표한 사례는 YG에서 빅뱅 이후 처음이다.

준비된 신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YG가 강조하는 지점이다.

트레저는 3장의 싱글앨범으로 데뷔 100일 만에 도합 70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통상적으로 정규앨범이 싱글보다 더 높은 음반 판매량을 나타내는 편을 고려하면 최종 판매량이 주목된다.

'나무엑터스', 중고등학생 새 얼굴 찾는다

오는 1월4일부터 29일까지 뮤즈 앱 통해 접수

배우 유준상, 지성, 이준기, 신세경, 천우희, 박민영, 문채원, 박은빈, 김향기, 서현, 송강, 강기영 등이 소속된 나무엑터스가 전국 중고등학생 오디션을 개최한다.

배우 전문 엔터테인먼트사인 나무엑터스는 '2021 전국 중고등학생 오디션'을 개최하고 새 얼굴을 찾는다고 28일 밝혔다.

배우를 지망하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기소개를 비롯해 본인 꿈 소개, 얼굴 정면, 측면, 웃는 모습을 한 개의 영상으로 담아 오는 1월4일부터 29일까지 뮤즈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1차 오디션은 지원서, 프로필 사진 등을 생략하고 연기 없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본인의 꿈을 소개하는 것이 기존 오디션과 다른 점으로 눈길을 끈다.

한편 오디션 1차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2차 연기 영상 오디션, 3차 개별 면접 등을 거치게 되며 최종 합격자들은 나무엑터스와 전속, 연습생 계약을 통해 전문적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관리 기회를 제공받는다.

김래원, 압도적 눈빛·추격 액션 예고…'루카:더 비기닝'

내년 2월1일 첫 방송

'루카' 김래원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추격 액션을 예고했다.

내년 2월1일 오후 9시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극 '루카 : 더 비기닝' 측은 28일 티저 포스터 2종을 최초 공개했다.

세상을 뒤바꿀 능력을 숨긴 '지오'로 분해, 한계를 넘어선 액션 본능을 폭발시킬 김래원의 변신에 기대가 쏠린다.

'루카 : 더 비기닝'은 특별한 능력 때문에 쫓기게 된 지오(김래원 분)가 유일하게 그를 기억하는 강력반 형사 구름(이다희 분)과 함께 세상에 맞서는 스펙터클 추격 액션물이다.

'보이스1', '손 the guest' 등의 김홍선 감독과 드라마 '추노', 영화 '해적', '7급 공무원' 등의 천성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티저 포스터 속 김래원은 눈빛만으로 분위기를 압도한다. 푸른빛이 감도는 깊고 신비스러운 눈동자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옭아맨다. 강하게 태어나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지오의 외로움과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한 컷에 담아냈다.

함께 공개된 또 다른 포스터는 스펙터클 추격 액션을 더욱 기대케 한다. 정체 모를 이들에게 둘러싸여 '다크' 아우라를 발산하는 지오. 그 위로 더해진 '한계를 넘어선 액션이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